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www.kocef.org / www.gcbiennale.org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주제전 <땅이 만든다 Earth Makes>
연계전시 대학(원)생 예비아티스트 참여 안내서

1. 전시참여 안내서
2.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및 주제전 개요
3.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_참여신청서

※ 세부내용 변경가능

※ 문의사항 : contact@gcb.kr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주제전 <땅이 만든다 Earth Makes> 연계전시 대학(원)생 예비아티스트 참여 안내서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주제전 《땅이 만든다 Earth Makes》에서
전국 도자 전공 대학·대학원 예비아티스트를 발굴·초청하는
특별 전시 섹션을 마련합니다.

■ 대학(원)생 참여 섹션 전시구성(안)

○ 참여대상 : 전국 도예(공예)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대학원 36개교 36명 예비 아티스트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주제전 《땅이 만든다 Earth Makes》에서는 전국 도자 전공 대학(대학원)을 대상으로 학교별 대표 작가 1인을 선정하여 참여하는 특별 섹션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섹션은 ‘100년 뒤 미래로 보내는 지구의 자산’을 주제로, 지구에서 다른 행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컨테이너)에 실릴 작품을 상상하고 제안하는 전시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출품작은 생활도자, 조명, 오브제 등 지구의 라이프스타일과 문화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도자를 기반으로 한 작품이면 가능하며, 동시대적 감각과 미래적 상상력을 자유롭게 확장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섹션은 ‘땅이 만든다(Earth Makes)’ 내 챕터 3인 **지구가 만든다 Made in Earth**에 포함되며. 주제와의 연계 속에서 미래의 미학, 지속가능성, 인간과 자연·물질의 관계에 대한 사유를 함께 담아내는 작업을 지향합니다. 조형적 완성도와 더불어 철학적 메시지를 함께 아우르는 작품, 형태와 사유가 균형 있게 작동하는 제안을 기대합니다.”

* **특전으로** 예술감독과 국내외 유수의 도자 관련 기관의 디렉터급 인사들이 우수작을 선정해 우수작 예비 아티스트와 선정자와의 티타임, 온라인 홍보 예정

■ 전시작품 요청사항

- 참여작품 : 전국 도예(공예) 학과 대학·대학원별 1인 1작품
- 전시공간 : 미술관 야외 컨테이너(3×6m, 2동) 내
 ※ 컨테이너 내부 양쪽 긴 좌대 약 1200×60×80cm 배치, 전시 예정
- 작품규모 : 가로·세로·높이 디스플레이 공간 60×60×100cm 이내
 ※ 천정 및 벽면 설치 불가, 전기 연결 필요시 사전협의 필수
- 작품형식 : 도자를 기반으로 한 작품
- 作品内容 : 100년 후, 미래 우주선에 실어 보낼 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도자 작품
 * 미래의 라이프스타일 오브제로 땅의 재료를 쓰는 행위가 곧 지구 환경과 직결됨을 인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자의 역할을 모색하는 작품

■ 지원사항

- 지원금 : 작가별 포장비 및 교통비 10만 원 지원 예정
- 운송 : 예비 아티스트 직접 반입·반출, 설치
- 컨테이너 전시 공간 연출
- 주제전 연계전시 참여작가로 홈페이지 게시
- 특전 : 출품작 중 우수작 선정 후 선정자 어워드티타임 및 비엔날레 SNS 채널 홍보
 ※ 우수작 선정자 : 예술감독, 국내외 우수 도자 관련 기관 디렉터 인사 등

■ 참여절차 및 역할

학 교	학생 아티스트	재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아티스트 1인 선정 •결과 공문발송 /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제작, 운송,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지원 / 컨테이너 전시공간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게시 / 홍보 • 특전제공 (우수작 선정 및 어워드 티타임)

■ 주요 추진일정(안)

~ 2026.3.19.	· 전시 참여여부 확정 (학교별)
2026.3월	· 안내 및 Q&A 기간
~ 2026.4월	· 참여 학생작가 확정 · 전시 작품 협의 / 작가 자료 취합(작가 CV, 작품정보, Statement 등)
2026.5월 ~ 2026.7월	· 전시작품 제작 / 작품사진 제출
2026.8월	· 전시연출 공사 진행
2026.8월말	· 작품 운송 및 디스플레이 / 촬영 *일정 추후 공지 예정
2026.9월	· 온라인 홍보
2026.9.18.	· 전시오픈
2026.9.18.~11.1.	· 전시운영 · 우수작 선정 및 어워드 티타임 진행
2026.11.2. 이후	· 전시 종료 및 작품 반출

■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개요

- 행사명 :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Gyeonggi Ceramics Biennale 2026 (GCB 2026)
- 기간 : 2026. 9. 18.(금) ~ 2026. 11. 1.(일)_ 45일간
- 장소 : 이천, 여주, 광주 및 경기 곳곳
- 주제 : 땅이 만든다 Earth Makes
- 예술감독 : 이대형
- 주최/주관 : 경기도/한국도자재단
- 행사내용
 - 전시학술행사 : 주제전, 공모전, 특별전, 포럼, 학술 세미나 등
 - 창작교류행사 : 국제도자워크숍, 레지던시 등
 - 페어마켓 행사 : 지역도자마켓, 야외플리마켓 등
 - 부대행사 : 도민참여프로젝트, 키즈비엔날레, 뮤지엄콘서트 등
 - 공식행사 : 개막식 및 공모전 시상식

< 주제전 개요 >

- 전시명 : 땅이 만든다 Earth Makes
- 전시기간 : 2026. 9. 18.(금) ~ 2026. 11. 1.(일)_ 45일간
- 전시장소 : 이천 경기도자미술관 2,3전시실 및 외부 공간
- 전시규모 : 15개국 32명 내외
 - ※ 연계전시 : 도자전공 대학·대학원생 36명, 도자명장 10명 내외
- 전시내용 : 도자를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협소한 정의에서 해방시켜, ‘지구적 현상의 기록’ 이자 ‘행성과의 공동 저술’로 재조명하며, 인간·재료·세계가 함께 저술하는 문화적 장으로의 확장을 보여주는 전시

- 전시구성 : **챕터 1: 흙이 만든다 Made from Earth (물질의 의지)**
 챕터 2: 땅이 만든다 Made by Earth (풍토가 만든 문화)
 챕터 3: 지구가 만든다 Made in Earth (행성적 서사)

○ 전시개념

땅이 만든다 Earth Makes

지층에서 형상으로, 재료와 세계가 공동 저자가 되는 순간

〈땅이 만든다 Earth Makes〉는 예술 작품이 과연 인간의 손으로만 만들어지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흙은 스튜디오에 이르기 이전부터 지구의 시간과 작용을 거친 물질로, 퇴적과 풍화, 물과 압력이 응축된 지질학적 기억을 품고 있다. 가마의 불은 단순한 소성 과정이 아니라, 그 기억을 다시 불러내는 또 하나의 지구적 작용이다. 이 전시에서 도자기는 형태를 부여받는 독립적 재료가 아니라, 열과 중력, 화학 반응, 시간과 함께 작동하는 협동자로 다뤄진다. 〈Earth Makes〉는 ‘누가 만드는가’라는 저작의 질문에서 벗어나, 인간의 의도와 물질의 행위성이 만날 때 무엇이 발현되는지를 묻는다. 도자기는 소유의 대상이 아닌, 인간과 지구가 함께 써 내려간 하나의 문장이다. 전시는 **흙이 만든다 Made from Earth, 땅이 만든다 Made by Earth, 지구가 만든다 Made in Earth**의 세 장을 따라 재료에서 문화로, 다시 행성적 서사로 확장된다. 이는 창조를 지배가 아닌 공존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미학이자 윤리에 대한 제안이다.

○ 세부섹션

챕터 1: 흙이 만든다 Made from Earth

첫 번째 장은 도자를 이루는 가장 근원적인 세 가지 요소-흙, 물, 불-에 집중한다. 점토의 점성, 불에 의한 변색과 수축, 광물의 무늬는 의도보다 우연에 가깝지만 물질의 질서 안에서 일어난다. 같은 형태의 기물도 온도와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색과 질감을 드러내며, 이는 재료의 고유한 '의지'를 보여준다. 장작가마의 요변과 자연 유약의 흐름은 불이 남긴 자국으로, 인간은 창조자라기보다 자연의 작용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동반자에 가깝다.

챕터 2: 땅이 만든다 Made by Earth

두 번째 장은 흙이 장소와 만날 때 생겨나는 문화적 다양성을 다룬다.

같은 흙도 지역의 기후, 물, 떨감, 식생과 결합하면 전혀 다른 도자 양식을 형성하며, 경기도 이천의 백자토, 강진의 청자토, 제주의 옹기토처럼 각 땅의 삶의 방식과 연결된다. 한국의 옹기, 중국의 자사호, 유럽의 마이센 백자처럼 도자는

생활의 도구이자 풍토의 산물로 작동한다. 전시장에는 세계 도자 문화권이 지도 위에 펼쳐져 지질 조건과 형태의 관계를 보여주며, 관객은 흙이 세계의 기후와 문화를 잇는 언어임을 경험한다.

챕터 3: 지구가 만든다 Made in Earth

세 번째 장은 시선을 미래로 확장한다.

흙을 다루는 방식은 지구의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섹션은 폐유리·산업 폐기물 유약, 생분해 점토, 저온 소성과 열 회수 기술 같은 지속 가능한 도자의 실험을 탐색한다. '미래의 고고학'이라는 상상을 통해, 먼 시점이나 다른 행성에서 발견될 세라믹 조각이 인간의 흔적일지 지구의 흔적일지 질문하며, 도자를 기술·생태·인간·비인간이 공존하는 매개체로 바라보게 한다. 결국 도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물질이 기억하는 윤리의 형태로 제시된다.

<이대형 예술감독>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예술감독이자 Hzone 디렉터인 이대형은 2024년 파리 올림픽 기념 전시 《디코딩 코리아 Decoding Korea》, 2020년 방탄소년단 세계 5개국 글로벌 프로젝트 《CONNECT, BTS》와 2017년 제 57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을 역임하며 현대미술의 지평을 넓혔다. 2023년 백남준 다큐멘터리 영화 《Moon Is the Oldest TV》의 공동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로 참여했으며, 2024년 레드닷(Red Dot), iF, IDEA 등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한 바 있다. 백남준문화재단 및 아트사이언스 뮤지엄 국제자문으로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주도해 온 그는 지난 수년간 안토니 고폴리, 야나기 유키노리의 초대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신안군에서 수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재)한국도자재단에서 추진하는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주제전 연계전시 대학(원)생 예비아티스트 전시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아이디어를 수집·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이용동의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연락처, e-mail, 소속 등

○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 신청서 접수 및 행사 안내 등에 따른 참여자 정보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이용방법

- 본 신청서에 지원한 개인의 정보는 (재)한국도자재단에서 본 사업관련 업무처리 시에만 사용

2.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 사업 신청접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1일 이내

- 원칙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의거,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3.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행사참여 및 향후 일정알림 등에 대한 안내가 불가합니다.

동의

동의 안 함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았으며,
개인정보 및 아이디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서명)